

#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온 거래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북남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며

담을 비롯한 부문별 회담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 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있는 조미수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문재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수뇌 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갈데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미크로네시아련방국가 대통령, 몽골민주당 위원장,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로씨야영화 및 통일당 위원장, 벨라루스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이탈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수단민족유니온 위원장, 세네갈독립운동당 총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에리트리아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과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세계평화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를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몽골, 캄보자, 파키스탄, 끼브로스, 일본, 단마르크, 벨라루스, 스위스, 이탈리아, 에스빠냐, 리비아, 에리트, 브라질, 베네수엘라, 페루, 에파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것과 관련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드리였다. 이번 상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지략과 대응단에 의하여 마련된 역사적인 사변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 남 조선 각 계가 칭송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계기로 남조선각계층 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각계층은 김정은위원장께서 《한》미련함공증전후훈련과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취소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북미관계가 소용돌이치고있던 시기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여 남북대화는 다시 순풍을 타게 되였으며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동맹, 서에 변혁하면서 남북관계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중형

무진하고있다.》, 《남북정상회담정례화를 뛰어넘는 극적인 번개만남을 통해 앞으로 북남관계가 상상할수 없는 더 큰 과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 불어오던 찬바람을 순간에 날려내고 남북관계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려놓았다.》,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일각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고 평하였다. 남 조선 각 계 층 은 이번 에 김정은위원장께서 문재인대통령을 극진히 배려하는 숭고한 동포애적공포를 보여주시였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의전이 대폭

축소된 실무회담이었지만 북은 통일각입구에 의장대를 정렬시키는 등 각뜻한 예의를 갖추어 문재인대통령을 맞이 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에서 방명록을 남기자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서 기뻐하시였고 회담기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끄시였다고 하였다. 회담을 마친 후 김정은위원장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들며 배웅하시는 모습은 전세계에 민족의 정과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력사적인 장면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